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고아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굿 사마리탄 칠드런즈 보육원(Good Samaritan Children's Home)에 속한 "후원자님의 후원어린이"의 사진을 동봉하여 보내 드립니다.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저는 후원자님의 요청에 따라 이 어린이를 후원자님께 배정하였습니다.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가 더 많기 때문에 여자 어린이 대신 남자 어린이를 배정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는 십 대 청소년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저 생존을 위해 구걸을 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조차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 힘든 삶을 겪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령이 높은 어린이들 중에서 이제 막 군에 입대한 두 명이 이번 주에 자신의 후원자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를 읽고 나서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군요." 이 어린이들의 전 후원자님들은 이 편지들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보육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제 2 소년 쉼터(Number 2 Boys Shelter)"라는 이름으로 미군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후 이곳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들 재산의 거의 전부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0 년간 가장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저기 깨진 많은 창문조차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기독교 기관에 팔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입하여 이곳을 6,500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139 명의 남자 어린이와 25 명의 여자 어린이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엄청난 전도의 기회가 됨을 느꼈는데, 이들을 단순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로 길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직원은 진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능숙한 교사들이 바로 저희 건물에서 학교 수업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30~40 명의 성인 신도가 매 주일 모든 어린이와 만나고 있으며 저희는 곧 잘 조직된 자립 교회를 갖게 될 거라 기대합니다.

꼭 후원자님이 후원하시는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가끔 소포도 보내주십시오. 어린이들의 답장이

정말 기다려지고 설렐 것입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후원자님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동봉된 안내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대구 남일동 33, 굿 사마리탄 칠드런즈 보육원(Good Samaritan Children's Home), 크리스천 리바이벌 펠로우십(Christian Revival Fellowship)

배송에는 3 개월, 답장에는 2 개월이 걸리지만,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후원금을 한 달 전에 미리 보내야 하므로 가능하면 후원금을 한 달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많은 후원자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에는 수천 명의 집 없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향한 후원자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 12 개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800 명의 고아,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 지원을 받는 과부와 더불어 약 700 명 정도가 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또는 어린이에 대해 편지를 쓰실 때는 반드시 어린이 번호와 이름을 써주십시오. 더 많은 사진을 원하신다면 반납 가능한 필름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 9:12)

한국의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과 후원자님의 중,

에버렛 스완슨 올림